



크리스천 사이언스로 가는 길

How I found Christian Science

현 소 환 / SoWhan Hyon

『キリスト教科学さきがけ』、2007年2号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긴요하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쉽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일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일평생을 바치기도 한다. 나도 젊은 시절과 어른이 된 초기까지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긴 영적 여정을 거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소년시절 나는 고향마을 고개 너머에 있는 동네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추리와 산타클로스의 모습들을 숨어서 들여다 본 것과 그리스마스 캐롤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즐겨 들어 본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의 엄격한 유교식 아버님은 내가 선조들을 위한 제사 외에는 다른 어떠한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처럼, 절(寺)에 다니시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내가 고향 집과 엄격한 아버지를 떠나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천주교 성당 미사에 참석해 보았고, 개신교 교회들과 불교 법당들을 찾아 다녔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의 어릴 적 열정은 대학시절까지 계속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군복무시 되살아났다. 나는 한국 해병대 사관 후보생학교(해병학교)에 입대, 지독하기로 소문난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경험이 나를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으며 나는 교회들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

과 법당들을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도교의 도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요가를 수행해 보기도 하였다. 결국, 나는 내가 찾아다닌 하나님의 개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후 나의 **하나님** 찾기는, 나에게 그렇게도 소중한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포기하듯 중단되었다. 의사들은 어머니께서 암에 걸렸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도 착하신 어머니를 남보다 먼저 데려가실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가슴이 찢어지는 애痛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었고, 나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그 후 1년 뒤, 나의 동생이 또 다른 암으로 입원하였는데 나는 한국의 한 통신사의 특파원으로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위통과 두통을 없애기 위해 서너 가지의 약을 먹어야만 했다. 나는 기자로서의 직업상 챙겨야 할 일에 많고 아주 경쟁적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어느 수요일 저녁, 한 인도네시아 특파원 친구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요즈음) 너는 왜 그렇게 맥이 없고 슬퍼 보이느냐고 물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나에게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신론자가 된 나는 그의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 날) 그는 자동차를 갖고 오지 않았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나는 내차로 그를 그의 교회(수요예배)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유엔 사무실에서 1시간을 운전하는 동안 그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려 하면서 너무나 친절하고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하나님**, 즉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에 의한 “치유”라는데 나의 관점이 쓸리게 되었다.

다음날 그는 나를 한 크리스천 사이언스 치유사의 사무실로 안내하였다. 그 치유사는 나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였고 나더러 메리베이커 에디 여사 저(著)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Science and Health with Key to the Scriptures)를 읽어 보라고 권하였다. 며칠을 읽었지만 나는 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졸립기도 하지만 끈질기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는데 제 1장 “기도”의 제 4페이지에 도달하였다. “항상 선하고자 하는 습관적인 투쟁(노력)이 끊임없는 기도이다”(P. 4:12-13)라는 문장을 접했을 때 나는 경외심

에 놀리게 되었다. (한 줄기 빛을 얻게 되었다). 나는 스스로 외쳤다. “이것이 진리다. 그래, 이 가르침이 진리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 본 모든 종교인들과 그들이 기도 말 가운데 쓰는 아름다운 용어들을 통틀어 볼 때 나는 “‘항상’ 선택하고자 하는 습관적인 투쟁”을 말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었다.

“과학과 건강”은 또한 **하나님**은 신인동형(神人同形)이 아니라, 즉, 인간의 모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은 생명, 진리, 그리고 사랑**이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이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하나님은 마음**이시다”(P. 311: 4)는 말과 “진리는 드러나 있다. 그것은 다만 실천이 필요할 따름이다”(P. 174: 20-21)는 문장을 접했을 때, 나는 드디어 진리이신 **하나님**, 나의 가슴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음을 확실히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아내는 너무나 놀라 “당신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냐?”고 고함을 치더군요. 아내가 놀라워하고 의심스러워하는 가운데, 나의 건강은 전혀 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곧바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가도 전의 위통과 두통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의 직업전선에서도 바로 그 달에 내가 새로 배우기 시작한 **마음**의 인도에 귀 기울임으로써 나는 기자로서 두 가지 특종 기사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축복들은 내가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무엇인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발견한 분명한 증거들이었다.

성경과 함께 “과학과 건강”을 계속 공부함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같은 말들이 종전에는 낯설고 나와는 무관하게 들렸으나, 갑자기 그 영적인 의미들이 살아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에서 나는 병과 고통과 고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체**(一切)이심을 깨닫게 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이 무(無)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내가 미국에서 서울로 귀환했을 때, 나의 가까운 친우 부부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 환영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 중 한 친구가 너는 뉴욕에 있을 때 “이상한” 종교에 심취하여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노골적으로

물어왔다. 나는 내가 새로이 발견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오히려 기쁜 마음이었다. 나는 “선(善)이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분**은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악이나 죄, 그리고 질병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곧 이어,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즐거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방은 (지금)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두움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사람은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영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나아가 “크리스천 사이언스에는 종교적 독단이나 철학적 독단이 없다. 복잡한 의식행사도 없다. 십일조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런 직급이 없다”고 설명하였더니, 친구들은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그렇게 논리적인 기독교인 줄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진리는 내가 오래도록 품었던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회의들과 의문들의 대부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을 밝게 해주었고, 나에게 놀라운 건강을 부여해 주었다. 나는 4 반세기 전에 이 종교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좋은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